

“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 법무부·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 해외 진출 기업의 노동인권 관련 위험 관리 도와

해외진출 기업의 노동인권 위험 요소, 실무자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법·제도와 환경이 달라 기업이 관련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위험 요소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전문가 강연과 실무 워크숍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기업이 알아야 할 인권실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어 노사발전재단의 류혜영 국제협력본부장이 해외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소개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실무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노동인권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방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후속 협의회를 추가로 마련하여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인권국 인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노일석 (02-2110-3673)
		담당자	사무관	장현주 (02-2110-3782)

